

'자주국가의 상징' 고국으로

고종 때 제작됐던 조선 국새 '대군주보', 재미교포 기증 통해 국내로 돌아와
문화재청, 효종 업적 기리기 위해 제작된 '효종어보'도 함께 기증받아

고종 때 제작됐던 조선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가 최근 재미교포의 기증을 통해 국내로 돌아왔다. 중국과의 사대외교를 청산하고 자주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국새로 평가돼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또 효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효종어보(孝宗御寶)'도 함께 기증됐다.

문화재청은 1882년(고종 19년)에 제작한 국새 대군주보와 1740년(영조 16년)에 제작한 효종어보를 지난해 12월 재미교포 이대수(84·Lee Dae Soo)씨로부터 기증받아 최근 국내로 인도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군주보는 외교문서나 행정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된 도장으로 국가의 국권을 상징하는 국새다. 높이 7.9cm, 길이 12.7cm 크기로 은색의 거북이 모양 손잡이(龜紐)와 인판(印版·도장 몸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고종실록', '승정원 일기', '일성록' 등에 외교관련 업무를 위해 고종의 명에 따라 1882년에 제작된 것으로 기록돼있다.

대군주보 이전까지 조선은 명과 청으로부터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국새를 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고종의 명으로 '대(大)조선국'의 '대군주(大君主)'라는 글씨를 새긴 대군주보를 새로 만들면서 이를 사용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고종이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등 당시 조선의 정세 변화를 감안해 중국 중심의 사대적 외교관계를 청산하고 독립된 주권국가로의 전환을 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군주보의 공식적인 사용 시기는 1882년 제작 이후 1897년까지로 파악되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업무를 담당하는 전권대신(全權大臣)을 임명하는 문서(1883년)에 실제 날인된 예가 확인됐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새로 제정된 공문서 제도를 바탕으로 대군주(국왕)의 명의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 조칙 및 관료



대군주보(사진 왼쪽)와 효종어보.

의 임명문서 등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효종어보도 이번에 함께 기증됐다. 어보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으로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거나 죽은 후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해 국가에서 관리한다.

높이 8.4cm, 길이 12.6cm 크기로 거북이 모양 손잡이에 금색을 띤 효종어보는 영조 16년(1740년)에 효종에게 '명의정덕(明義正德)'이라는 존호를 올리며 제작된 것이다. 효종 승하 직후인 1659년(현종 즉위년)에 시호를 올렸고 1740년(영조 16년)과 1900년(광무 4년)에 존호를 올렸으며 이때마다 어보가 제작됐다.

현재까지 효종어보 3점 중 1900년에 제작한 어보만 전해져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이번 환수로 1659년에 제작된 어보를 제외한 효종 관련 어보 2점을 보유하게 됐다.

대한제국 시기를 포함한 조선시대 국새와 어보는 총 412점이 제작됐으며 이번에 돌아온 2점을 제외하고도 아직 73점이 행방불명 상태다. 국새·어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으로 소지 자체가 불법인 유물로 유네스코 123개 회원국을 비롯해 인터폴과 미국국토안보수사국 등에 행방불명 상태인 유물 목록이 공유돼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새나 어보의 환수는 주

로 압수나 수사 같은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환수는 제3자의 도움과 소유자의 결심으로 이뤄진 우호적 환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이번 대군주보·효종어보 환수는 기증자인 재미교포 이대수씨의 기여로 인해 성사됐다. 이씨는 1960년대 미국 유학 후 줄곧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문화재에 관심이 많아 틈틈이 경매 등을 통해 문화재들을 매입했고 1990년대 후반에 이 두 유물을 매입했다.

그러던 중 최근 국새·어보가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가 기증을 결심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미주현대불교발행인 김형근(64)씨와 경북 구미 한국국외문화재연구회 전 사무처장 신영근(71)씨 등도 환수 과정에 기여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기증을 기점으로 도난된 국새·어보에 대한 안내문과 홍보 영상물을 제작·배포해 행방불명 상태인 문화재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환수된 대군주보와 효종어보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 '조선의 국왕'실에서 일반 관람객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뉴시스

'펭수의 인기' 식지 않았네?



눈꽃에디션 다이어리·토이북 출시

EBS의 연습생 캐릭터가 또 한 번 서점가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에세이 다이어리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의 리커버(새표지) 한정판 눈꽃 에디션과 여러 모습의 펭수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페이퍼 토이북'이 최근 출간됐기 때문이다.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는 인터넷 서점 인터파크 기준 지난해 12월 예약판매 당시 시간당 1000부 이상 팔리는 등 이례적 관심을 받았다. 새로 출간된 눈꽃 에디션은 기존 노란 표지가 아닌 분홍색 표지에 화환을 쓰고 드레스를 입은 펭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양장본으로 펴냈으며 펭수의 미공개 사진과 자작곡도 수록됐다.

'펭아트 #페이퍼토이'는 펭수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형 아트북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펭수 팬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차니(Chani)가 작가로 참여해 페이퍼토이 작품을 직접 디자인했다.

광범한 펭수, 합창 펭수, 웰스하는 펭수, 화가 펭수, 허수아비 펭수, 교관 펭수, 발레 펭수, 민속촌 펭수 등 총 12가지 모습의 펭수 도면과 설명서가 담겼다. 칼이나 가위 없이 풀만 이용해서도 펭수를 조립할 수 있다. 페이퍼토이북은 오는 28일 정식 출간된다.

서점가는 이러한 열풍에 힘입어 각종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인터파크는 '페이퍼토이북' 구매자에게 강아지 모양의 파우치, 마키마우스 데스크 매트, 캐릭터 펜을 케이스 중 하나를 증정한다.

/뉴시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19일 '2020년 양성평등사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양성평등사업 자문위원회' 성료

센터, 올해 장애인 대상 성인지갑수성 함양 교육 신설키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윤애)는 19일 '2020년 양성평등사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시사회화혁신센터 조선희 센터장, 젠더교육전문가그룹 청어람 김명륜 대표,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이주연 부연구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센터는 올해 '장애인 대상 성인지갑수성 함

양 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며, 시·군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총 12개 사업 4,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54-3821 또는 홈페이지(www.jbwce.kr)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문체부, 게임물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신고기한 연장

게임산업진흥법률 시행규칙 시행... 신고기한 30일 이내로 늘려

게임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 및 등록시 신고기한이 연장돼 민원인 편의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개정 내용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영입의 양수인 등이 지위승계를 신고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늘려 영화비디오법 등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맞췄다.

또 기존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이 3일인 데 비해 변경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은 7일이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했다.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양도·상속

자가 허가증·등록증 등을 분실해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서에 허가증 등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허가증 등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